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하나님 제목 : 크신 주님 성경:시편 95편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 여호와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 그 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 내가 사십 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95:1-11)

3. 여호와와는 크신 하나님.

-이단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 악의 세력이 크다는 것.

-믿음이 적은 자들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 마귀의 세력이 크다는 것.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 그냥 악을 무서워한다. 그러나 악은 싸우면 이긴다. 그는 종이 호랑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는 도둑놈이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도용한다. 그

런데 판권도 소유권도 없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은 크지 않다.

-다만 그 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소리가 클 뿐이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시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원망이나 무시, 반역은 정말 방법이 없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스스로가 결단하면서 마귀의 편에 서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치명상을 입지는 않는다. 다만 그 영혼이 지옥에 갈 뿐이다. 스스로가 마귀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세상에 없다.

-인생은 영원하나, 현재적 삶은 제한적이다. 누군가 죄를 범하면 그 댓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면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 행동이 죄악이기 때문이다. 고로 죄를 범하면 그 영향력을 본인이나 해당되는 사람이 받게 된다. 심판관이신 하나님은 아주 지혜롭게 그 형벌을 집행하신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신다. 최초의 대응은 선악과로 충분하였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서의 충분한 그래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

-그러나 선악과를 범한 인류를 위해서 또 다른 악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 하셨다. 그것은 먼저 대속적 죽음을 통한 생명연장, 생명나무의 실과에 대한 접근 차단, 에덴동산 폐쇄였다. 죄악이 계속되자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셨고, 홍수를 통해서 수명을 120년 가량으로 단축시키셨다. 죄악이 계속되자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시키셨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방치하셨다. 방치는 은총의 차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 은혜는 계속해서 베푸시면서 그 하는 행위에 따라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셨다.

-단 하나의 위험 때문에라도 방지턱은 설치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악 때문에 우주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신다. 그러나 분명히 죄를 저지를수록 죄인이 사는 땅은 저주를 받고 황폐화 된다. 그러면 그 땅은 무가치한 땅이 되고, 혈값에 팔리게 되고, 의인이 그 땅을 사들이게 되고, 그러면 그 땅은 회복된다.

-온 우주를 생각할 때 악은 티끌과 같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나다.

-그러나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1 이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히12:1)

4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계7:4)

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14:1)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7:9)

-지옥을 만든다고 해도 달만한 크기의 지옥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동안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가둘만한 지옥이라면 달도 너무 크지 않을까? 달의 크기는 우주에서 바늘구멍보다 적은 크기.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비교해 볼 때 악의 영향력은 찻잔 속의 폭풍이라는 의미.

-그러나 그 영향력만으로도 한 영혼이 지옥 가기에는 충분한 파괴력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악에 대한 경고로는 정신을 차리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 영향력의 크기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함.

-그러므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 밖에 없다.

-악은 반드시 소멸된다. 그리고 그 세력들은 지옥에 갇히게 된다.

-인류나 사람은 그리 큰 존재가 아니다. 특히 하나님과 비교한다치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무리일 뿐이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거나 결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결단한다 쳐도 스스로 그 결단을 이루어 내는 존재도 아니다. 우리는 보잘 것 없고 초라한 존재에 불과하다.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다면 무서울 것도, 이룰 수 없는 것도 없다.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거나, 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8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므리바 사건;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어 모세를 치려 하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렘산의 반석을 치라 하셨다. 그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이 계신가의심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므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 곳의 이름을 맛사라고도 한다.(출 17:7)

<찬양예배>

주제:예배 제목: 진짜 예배 말씀: 로마서 12장1-3절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롬12:1-3)

-모든 자비하심으로 ;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신다. 우리가 깨우치고 겸손해지며 태도가 변하기를 참아 주신다.

-우리에게 너그러우시기 때문이다.

-참아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방법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건방지고 까다로운 성격은 세월이 약이기 때문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악이 소멸하고 성질이 꺾인다. 아무리 생각해도 반역이나 불손이나 교만이나 따탈스러운 것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답이 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가 중요함. 제사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뜻이 담겨있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희생제물이 된다는 뜻. 죽은 제물은 고깃덩이의 역할만 하지만, 살아있는 제물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됨을 의미.

-하나님은 죽은 고기를 좋아하시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진짜 예배는 영적 예배, 즉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말함.

진짜 예배에 도전하고 헌신하자. 진짜 예배에 올인하자. 한주간 동안 예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자.

-진짜 예배는 의례적인 예배가 아닌 예배. 예배 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세속적인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도 거룩하게 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더 나은 것이라는 의미.

-진짜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될 것인가를 연구하자. 예배 하는 순간 순간을 가장 가치있는 순간으로 거룩하게 하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자만 코칭하고 함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예정.

-우리의 목적은 예배며, 더 많은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예배는 온 삶이 예배. 온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삶을 통한 예배. <SM Entertainment>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롬12:1-3)

-조심하라! 제 멋대로 행하지 말고, 제멋대로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자신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도면 성도로서 생각하고, 목사면 목사로서 생각하라.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생각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생각하라.

